

당정청의 도넨은 립서비스... 림만 열면 "경제 좋아진다"

문재인 정부 당정청 핵심인사들이 줄곧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하락하는 추세'라는 지적이 정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성장 상승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때 "어려운 경제 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발언에 앞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경제를 국민이 안심해도 된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홍 부총리는 대정부질문 때 올해 2분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임을 수차례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다른 나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분기 성장률 하나만으로 나라 경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2분기엔 상당부분 반전한 분기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서는 홍 부총리 발언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뿐 아니라, 문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분기엔 성장 반등 상당부분 반전할 것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그동안 '경제성장 상승' 발언을 줄곧 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작년 8월 26일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 올해 인산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다. (소득 주도성장)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장 전 정책실장은 그해 11월 4일 국회에서



소주성-혁신성장-공정경제 실질적 성과 체감 가능할 것

장하성 전 정책실장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때 "(경제성장률)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 전 실장의 이러한 발언이 나온 배경은 당시 일자리 및 임금격차 등 경제분야 지표가 갈수록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뿐인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일자리 계속 늘고 있어 6월부터 고용회복 전망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 역시 작년 5월 20일 춘추관에서 일자리 관련 기자회견 때 "일자리 수는 사실 계속 늘고 있고 6월부터는 고용여건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월 초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한다. 물론 경고 사인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의 소



사회에 경고 사인 필요하지만 도 넘으면 소비 심리 위축 불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 심리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11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경제 성적 관련 얘기만 나오면 '향후에는 나아질 것'이란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며 "지금 야권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 얘기를 여론은 경청해야 한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자신을 버려라·'성장'에 올인하라"... 선배 기업의 조언

7월 수출 2.6% 감소 반도체는 25% 하락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회사에 필요한 독한 결정해야"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은 '성장 하나에 몰입하라'는 겁니다. 주당 7%씩 성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하나의 행동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장이라는 스타트업의 지상 과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이 저희의 본질입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예비유니콘 기업과 스타트업에 이렇게 조언했다. 선배 유니콘 기업 대표로서 성장 하나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인기 있는 결정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독한 결정을 해야 한다"며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떤 영역에서는 상식을 벗어나는 의사결정이 많아 어렵지만, 회사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로 마루180에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최종결과 발표와 함께 제2벤처 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는 지난 3일 진행된 '엔젤플러스(A+) 프로그램 시행 및 기보 엔젤 파트너스 발대식' 행사에 이어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열렸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시장환경 조성'과 그에 따른 정부역할을 주제로 유니콘과 예비 유니콘 기업, 벤처캐피탈 등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선배 유니콘 기업인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로 마루180에서 열린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발표하고 있다(왼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스토리를 공유하며 후배 예비 유니콘 기업을 응원했다.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는 예비유니콘 기업 대표에게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자신만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변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방식을 얻을 때 1인 기업에서 중소기업, 유니콘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동료, 직원들과 '투게더 정신'으로 일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릴 때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다"며 "여러분도 저처럼 1조원 매출을 꿈꾼다면 자기를 버릴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신설했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 기업 13곳에 대한 보증서를 수여했다.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메쉬코리아 ▲리디 ▲컬리 ▲와이즈 ▲블랭크코퍼레이션 ▲디에스글로벌 ▲마이뮤직테이스트 ▲피피비스튜디오 ▲하나기술 ▲네오랩컨버전스 ▲달콤소프트 ▲왓차 ▲힐세리온이다.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적

자 여부 등 재무성과와 상관없이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 지원하는 것이다. 예비 유니콘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4월 말 공모한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프로그램에는 총 47개사가 신청해 서류평가, 현장 기술평가, 대면 발표평가 3단계를 거쳐 최종 1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13개 기업에는 총 1115억원이 지원된다.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된 기업은 성장세가 일반기업보다 현저히 높았다. 예비 유니콘 기업은 지난 3년간 매출 성장세가 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1180명을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뛰어났다. 누적 투자유치금액도 293억원으로 전체 평균 벤처 투자유치금액의 약 12배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영업의 역량을 시험하고 있었다. 예비유니콘 13곳 중 10곳이 높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영업의 역량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플랫폼, B2C 성격을 가진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정보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 ICT와 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조업 주를 이뤘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선정된 배기식 리디 대표는 "이번 보증으로 받은 자금을 활용해서 서비스 확장을 통해 국내 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과 포부를 발표했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최원영 과장은 "하반기에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 정식 예산으로 편성해서 계속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유니콘기업 육성 토크 콘서트는 참석자 모두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한국이 현재 뒤쳐져 있는 부분이 클라우드와 AI인데, 이 두 가지를 빨리 접목하면 제2벤처 붐은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에서 예비 유니콘을 육성함은 물론 여러분들이 창업하면서 AI 서비스를 쉽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7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이달 초 수출액 감소폭은 앞선 5-6월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보이어나이는 조업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1~10월 하루 많았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4.0% 감소했다. 그러나 전달과 비교하면 32.3%(33억 1천만달러) 증가했다.

앞서 월간수출액은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1~1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반도체(-25.0%), 선박(-16.9%), 석유제품(-3.0%) 등은 감소했고 승용차(24.2%), 무선통신기기(18.9%), 가전제품(54.6%) 등은 증가했다.

국가별로 중국(-13.2%), 유럽연합(EU, -10.5%), 중동(-20.3%) 등은 줄었고 미국(11.2%), 베트남(14.5%), 일본(16.1%) 등은 늘었다.

이와 함께 7월 1~10일 수입액은 1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9.5%), 기계류(0.3%), 승용차(22.6%) 등의 수입은 증가했고 원유(-24.4%), 가스(-11.2%), 반도체 제조용 장비(-32.5%) 등은 감소했다. 중국(16.0%), EU(8.5%), 미국(19.7%), 베트남(1.3%) 등은 늘어난 반면 중동(-15.7%), 싱가포르(-12.7%) 등은 줄었다.

최근 우리나라에 일부 반도체 소재 수출을 제한한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석대성 기자 bigstar@